

2013. 06. 21(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3년 6월 20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인재기획과장	배형우	3488-2021
--------	-----	-----------

인재행정팀장	박진순	3488-2030
--------	-----	-----------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4매

담당자	김형희	3488-2037
-----	-----	-----------

市 인재개발원, 미래인재 청소년에 진로체험 실시

- 市 인재개발원, 6.20(목) 데이터센터·소방학교와 함께 중학생 대상 '진로체험' 실시
- 지난 5.28 초등학생 현장학습에 이어 대왕중학교 학생 32명 대상
- 미래인재인 청소년 진로체험에 공무원 멘토들이 앞장서
- 앞으로 지방학생까지 포함,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정한 공유도시 완성해 나갈 것

서울시 공무원 채용·교육 전문기관인 서울시 인재개발원이 중학생 진로체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눈길은 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원장 남원준)은 6월 20일(목) 서초동 소재 서울시 3개 기관(인재개발원, 데이터센터, 소방학교) 협업으로 대왕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체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 인재개발원은 지난 5.28 관내 초등학교(봉은초, 수서초) 학생 58명을 대상으로 현장학습 및 직업체험을 시범적으로 실시

한데 이어, 이번에는 인근의 대왕중학교 1~3학년 학생(32명)을 대상으로 약 90분간에 걸쳐 진로체험을 실시한다.

○ 이번 진로체험은 대왕중학교 진로체험 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서 공무원에 관심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초동 소재 서울시 3개 기관이 협업으로 추진한다.

□ 이번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참여하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참가 학생 5명당 공무원 1인의 멘토를 지정, 전체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하면서 개별적으로 멘토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먼저, 참가학생들은 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의 종류와 하는 일 그리고 공무원이 되는 방법 등 공무원 직업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듣고, 해당 멘토와의 대화를 통해 타 직업과 비교를 해 보는 등 진지한 진로탐색의 시간을 가진다.

○ 멘토들은 학생들과 전체 프로그램 동안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학생들의 참여와 이해를 돕고, 직업 이외의 다양한 삶의 경험에 대해서도 멘토링한다.

□ 이어 서울시 데이터센터에서는 서울시 전자정부와 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소개를 듣고, IT 관제실 및 매직스크린 등을 견학한다.

- 마지막으로 서울시 소방학교를 방문 담당 소방공무원으로부터 소방관이란 직업과 소방장비에 대하여 생생한 설명을 듣고, 화재진압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 멘토로 참여하는 배형우 인재기획과장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등 진로 체험이 강조되고 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아직 진로체험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수박 겉 핥기’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다. 이번 진로체험은 처음 실시한 만큼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 수요자인 학생들 눈높이에서 프로그램 등을 더욱 보완하여 청소년들의 진로 체험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 개원 51주년을 맞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올해를 ‘열린 인재개발원’ 원년으로 삼아 교육시설·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시민들과 공유하고 있는 가운데, 또 새로운 인(人)·물(物)·정보(情報)의 ‘공유’에 귀추가 주목된다.
- 남원준 서울시 인재개발원장은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올해 시범도입되고, 2016년에는 전체 중학교로 확대되는 등 진로탐색과 체험학습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교육기관인 서울시 인재개발원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청소년들이 알찬 진로탐색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러한 조그만 시도들이 청소년 진로체험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진로체험의 의의를 밝혔다.

- 또한, “향후에는 인재개발원을 비롯한 인근 서울시 기관의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 전국 단위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시켜 나갈 것이며, 특히 지방 학생들의 서울체험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1박 2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명실상부한 청소년 현장학습 및 진로체험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28, 봉은초·수서초 현장학습 및 직업체험 사진】

